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아시아사

총평: 신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등장하여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다 할 '킬러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신유형의 문제는 7번, 11번이라 할 수 있겠다. '조총'이 한 문제의 중심 주제로 등장한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하지 않았나 한다. 또한, 7~8세기의 문제를 연표로 묻는 것이, 근대의 연표를 중점적으로 외웠던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주제일 수 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때까지 실시된 모의고사에서의 유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번의 문제는 유형은 새롭지 않았으나, 사료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과 북위 17도선의 군사 분계선이라는 말을 숙지하고 있어야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해설에서도 몇 번 제시했듯이,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 주제 통합형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4번에서는 임진 전쟁과 성리학 주제를 엮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진 전쟁에서 성리학이 등장하는 부분을 최대한 떠올려야 한다.

해설에서도 몇 번 제시했듯이,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 주제 통합형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4번에서는 임진 전쟁과 성리학을 한 주제로 엮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진 전쟁에서 성리학이 등장하는 부분을 최대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사건의 인과 관계나 전후 관계를 살펴 시기를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극악의 킬러 문제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통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11번도 7~8세기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 선지 중에서 그에 해당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시기와 겹치는 사건을 고르면 된다.

아래 해설을 최대한 즐겁게 쓰려고 노력했으니,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동아아시아사 모의고사 출판팀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1. 주제: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 - 홍산 문화 / 정답 : ㉓

해설: 문제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에 관해 묻고 있다. '홍산 문화'라는 이름을 대놓고 제시하고 있고, 출토되는 유물도 여신 얼굴상과 옥기인 것을 보았을 때, '홍산 문화'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홍산 문화는 라오허강 유역에서 발흥하였으며, 따라서 정답은 (다), ㉓번이라 할 수 있다.

오답 선지 분석

- ㉑ (가)는 베트남 홍강 유역으로, 신석기 문화로는 '퐁응우옌 문화'가 있으며, 돌림판을 이용하여 정교한 무늬를 새긴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 ㉒ (나)는 양쯔강 하류로, 신석기 문화로는 '허무두 문화'가 있으며, 주로 흑도가 출토된다.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다.
- ㉔ (라)는 한반도로, 대표적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
- ㉕ (마)는 일본 열도로, 신석기 문화로는 '조몬 문화'가 있으며, 새끼줄 모양의 조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2. 주제: 흉노의 특징 / 정답: ㉕

해설: 문제는 자료를 통해 '이 국가'가 흉노임을 알아주기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초원 유목 문화'라는 점, 최고 통치자가 '선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 선우가 좌현왕, 우현왕을 거느린다는 점에서 이 국가는 '흉노'임을 알 수 있다. ㉕번에서 '한으로부터 공물을 받는다'는 점이 나오는데, 한 고조와 목퓔 선우가 '평성'에서 대결한 후, 한 고조와 목퓔 선우가 화친을 맺은 것을 생각해 보라. 한 고조는 흉노에게 패한 후, 공물을 바치며 '평화를 돈으로 샀다'.

오답 선지 분석

- ㉑ 고조선을 정복한 것은, 한 무제 대의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한'에 대한 선지이다.
- ㉒ 안남 도호부는 679년에 설치되었으며, '당唐'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당'에 대한 선지이다.
- ㉓ 파스파 문자는, '원元' 쿠빌라이 칸 시기에 파스파에 의하여 창간된 문자로, '원'에서 쓰인 문자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에 대한 선지이다.
- ㉔ 맹안, 모극제는 여진 고유의 제도로, '금金'에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금'에 대한 선지이다.

3. 주제: 북위의 통치 제도 / 정답: ㉑

해설: 문제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가)국이 북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나라라는 점이다. 선비족이 북위를 세웠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후에 북위의 효문제의 한화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씨를 '탁발씨에서 원씨'로 바꾸는 것을 보았을 때, 탁발이 북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에 마지막 중심지 이동이 '평성'에서 '뤄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 중, '천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적극적인 한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심지를 '평성에서 뤼양(낙양)'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분명 나온다. 따라서, (가)국은 북위이며,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①번,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라는 내용이 정답이다.

오답 선지 분석

- ② 다루가치를 파견한 것은 '몽골'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다루가치를 파견한 바 있다.
- ③ 야마타이국과 교류한 나라 자체는 많겠지만, 동아시아사 범위 내에서 살펴보자면, '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삼국 시대의 위, 촉, 오 중에 위 나라는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준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 ④ 북면관, 남면관제를 실시한 것은 '거란', 즉, '요'이다. 유목민족과 한족을 동시에 통치하기 위해 이원적 통치를 지향했고, 이는 북면관, 남면관제의 실시로 이어졌다.
- ⑤ 어우락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남비엣'의 쯔에우다에 관한 설명이다.

4. 주제: 성리학, 임진 전쟁의 '영향'과 관련된 자료 활용 / 정답: ③

해설: 언뜻 처음부터 보면 임진, 정유 전쟁과 관련된 문제 같지만, '강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성리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그는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을 전파하였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사서오경왜훈'을 편찬할 수 있었다. 또한, '주희가 집대성한 것은 성리학이라 할 수 있으며, '하야시 라잔'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보아 '그가 만난 승려'는 후지와라 세이카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학문으로, 격물치지와 거경궁리의 수양법을 중시하였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라 할 수 있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이름부터 아닌 것 같다. '예수회'라니. 어쨌든 크리스티교와 관련 있는 것은 확실하고, 동아시아사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신교에 대항하여 예수회가 만들어졌으므로 '로마 가톨릭 교리'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다.
- ②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사상, '신국의식'은 가마쿠라 막부에 몽골의 군대가 침략하며 생겼다. 몽골 군대가 일본 원정을 하며 배를 정박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 몽골의 군대가 참패한 적이 있다.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그 태풍을 신의 바람이라 하여 '신평神風'이라 하였고, 이것이 '가미카제'이다.

④ 자비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탈을 추구한 것은 '불교'와 관련된 설명이다.

⑤ 형이상학적 학문 경향을 '비판'했다는 것에서 성리학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고증'을 중시하였으니 고증학에 대한 설명이다.

5. 주제: 에도 막부/ 정답: ③

해설: 우선, '다이묘'라는 명칭이 무로마치 막부부터 등장하므로 최소한 무로마치 막부 이후의 시기를 상상하면 된다.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만 남게 된다. 그런데,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문서'가 나오고, 이 문서를 발급받은 '무역선'이라고 한다. 자국 상인들에게 일본이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사에서 '슈인장 무역'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 또한, '무역선'이 문서를 발급받았으니, 이 무역선은 '슈인선'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 은'이 사용된 점을 보았을 때, 은광 개발이 활발해진 16세기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에도 막부' 뿐이다. 에도 막부는 1603년에 수립되어, 메이지 유신이 발발한 186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니 그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면 될 것이다. ③번, 류큐가 사쓰마 번의 침공을 받은 것은 1609년의 일로 그 시기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답은 ③.

오답 선지 분석

① 명이 일본과 감합 무역을 한 것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일이므로, 시기상 맞지 않다.

② 조선이 일본인에게 3포를 개항한 것은 1426년의 일이다. 또한, 위의 '막부'가 에도 막부임을 알면, 에도 막부와 조선은 부산의 '초량 왜관'을 통해서 무역한 것을 알 수 있다. 3포를 개항하지 않았다.

④ 연은 분리법이 일본에 처음 도입된 것은 16세기 초반의 일이다. 16세기 초반의 일본은 센고쿠 시대였다.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반에 세워졌다.

⑤ 정화의 대선단이 아프리카 동부까지 항해하였다는데, 정화의 원정은 영락제에서 선덕제 시기, 즉, 1405년에서 1433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시기상 맞지 않다.

6. 주제: 당 율령 체제의 변형, 발해와 일본 '나라 시대' / 정답: ④

해설: 당 율령 체제를 수용한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가) 옆에 '상경성'이라는 말이, (나) 옆에 '헤이조쿄'라는 말이 있다. 상경은 발해의 수도였으니, (가)는 발해, 헤이조쿄는 일본 나라 시대의 수도 역할을 했으니, (나)는 일본 나라 시대에 관련된 것이다. 4번에 감찰 기구로 탄정대를 설치했다는 설명이 일본의 설명과 맞다. 일본 2관 8성제에서 특이한 기구가 동아시아사에서 두 가지 나오는데 알아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두자. 탄정대와 오위부!

오답 선지 분석

- ①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은 일본 2관 8성제에서 2관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태정관) 따라서 발해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지방에 행성을 설치한 것은 몽골이다.
- ③ 3성 6부제를 운영한 것은 당, 발해 등의 국가이다. 일본은 2관 8성제로 변용하여 운영했다.
- ⑤ (가), 즉 발해는 주자감을 둔 것이 맞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7. 주제: 조총의 전래 / 정답: ㉠

해설: 위의 사료에서 '유럽 상인'의 물건이라는 점, 또한, 화약을 넣고 작은 납을 넣는다는 점에서 총을 연상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에 조총이 전래된 것은 1543년의 일이며, 아래 선택지에서 1543년 이후에 일어난 일만 고르면 정답이다.

- ㄱ. 여몽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는 몽골의 일본 1차 원정인 1274년, 혹은 2차 원정인 1281년인데, 둘 다 1543년 이전, 즉, 조총이 전래되기 전이므로 해당 없다.
 - ㄴ. 오닌의 난은 1467년에서 1477년 사이에 일어났다. 어찌 되었든, 1543년 전이다.
 - ㄷ.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의 평양성 전투는 임진 전쟁 중에 일어났으며, 최소한 1592년에서 1597년 사이의 일일 것이다. 1543년의 이후이다. 또한, 항왜 '사야가'(김충선)의 일화를 안다면 그가 조선에 조총 기술을 전래했다는 것은 알 것이다. 일본인이 조총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1543년 이후의 일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 ㄹ.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의 일이며, 그 내용도 오다 노부나가 군대가 조총을 활용하여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군단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니, 조총을 활용한 전투이다.
- 따라서, 답은 ㄷ과 ㄹ을 포함하는 ㉠번이다.

8. 주제: 원대 경제 상황 / 정답: ㉡

해설: 교초, 쿠빌라이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왕조는 '원'이다. 그런데, 이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한다. 원은 1271년에 세워졌고, 주원장이 명을 세운 1368년까지 있었으니 그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정답이다. 2번에 목화가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이야기, 고려의 '문익점' 이야기를 알 것이다. 목화씨는 원대에 고려로 전달되었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실패가 발행된 것은 청에서 천계령이 풀린 이후이다. 천계령 해제는 1684년에 이루어졌다. 애초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에 중국의 왕조가 '청'이라는 점에서 '원'과 거리가 멀다.

③ 지정은제 역시 청대 옹정제에 의해 실시되었다.

④ 공행이 광저우에 설치된 것은 청 건륭제 대의 일이다. 그 전의 무역은 계속 시박사가 관리했다.

⑤ 경강상인 등 사상이 성장한 때는 조선 후기 때이다. 원대와 조선은 시기가 하나도 안 겹친다.

9. 주제: 과거제 / 정답: ②

해설: 관리 선발 제도인데, 동아시아사에서 관리 선발 제도하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거제 뿐이다. 또한 '수대에 처음 실시'되었고, '전시'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통해 (가)가 과거제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ㄱ.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한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ㄴ. 봉건제와 군현제가 절충되어 운영된 것은 '군국제'에 대한 설명이며, 과거제와는 관련이 없다.

ㄷ. 베트남에서는 리 왕조 때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이 강해서 과거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적었다.

ㄹ.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를 왕래하는 것은 '산킨고타이제'와 관련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과거제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따라서, 답은 ㄱ 과 ㄷ이다. 정답은 ②번.

10. 주제: 정복 왕조 요, 금 / 정답: ⑤

해설: 연운 16주를 차지했다고 한다. 연운 16주는 거란, 즉, '요'가 차지했다. '요'를 멸망시키기 위해 '금'과 협력했는데, 송이 이후에 배신을 하자, 송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 1127년에 일어난 '정강의 변'에 관련된 설명이다. 따라서, (가)는 요, (나)는 금이다. 요와 금은 각각 거란 문자, 여진 문자를 만드는 등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불교를 숭상했다거나,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오답 선지 분석

① 연행사를 파견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다. 거란과는 거리가 멀다.

② 몽골 팔기를 조직한 것은, 애초에 '팔기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팔기제는 후금의 누르하치 때부터 제도화 되었다.

③ 호라즘을 정복한 것은 칭기스 칸의 업적이다. 여진과는 거리가 멀다.

④ 이갑제를 실시한 것은 명의 홍무제이다.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11. 주제: 7-8세기 동아시아 국제 관계 / 정답: ①

해설: 우선, 생소한 유형이다. 그래도 차근차근히 보면 7-8세기 동아시아 국제 관계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된다! 살수대첩이 일어난 것은 612년이지만, 수가 아주 짧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면 598년 부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 건국은 698년에 이루어 졌고, 한국사 지식을 조금 활용해 보면 무왕-문왕-선왕 순이다. 8세기 언저리임을 알 수 있다.

ㄱ.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당'이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말이다. 당은 618년에 성립되었다. 그러니 7세기부터 파견했을 것이고, 당이 쇠약해지는 시점인 9세기에는 파견을 중지한다.

ㄴ.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나당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 백제는 660년에,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고, 신라가 나당전쟁을 통해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수한 것을 보았을 때, '나당동맹'도 결국은 7세기 어딘가에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히는 648년에 체결되었다.

ㄷ. 북제는 돌궐에 조공 사절을 파견했다는데, 애초에 북제가 북위가 분열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북위가 동위, 서위로 분열되고 각각 북제와 북주가 된 것, 또한, 수는 '북주의 양견'이 남북조를 통일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북제의 존재는 '수'의 성립 이전에 있는 것이다. 연표에서는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쩌 왕조, 몽골군은 애초에 13세기의 일이다. 몽골군은 1258년, 1284, 1287년 세 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즉, ①번이 정답이다.

12. 주제: 청, 에도 막부, 조선 후기의 문화 / 정답: ④

해설: 우선, '우키요에'라는 말에서 에도 막부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막부는 1603년에 건설되었고 1868년에 멸망하였으니 17세기~19세기의 동아시아 문화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대 동아시아의 한반도는 조선 후기의 문화가, 중국에서는 명말 문화 혹은 청의 문화를 말할 수 있겠다. 그 시기의 문화로 옳지 않은 것인데, 정답은 4번이다. 대월사기가 처음 편찬된 것은 1272년의 일이다. 나머지, 1,2,3,5번은 조건에 부합하는 선지들이다.

13. 주제: 동아시아의 불교-구법승/ 정답: ⑤

해설: 인도 구법 여행을 다녀 온 동아시아 승려들이다. 1부와 2부에 각각 법현과 의정이 나왔다. 정답은 5번인데 혜초가 인도에 다녀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애초에 당시 '인도'라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아시아사

나라가 '천축국'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감진은 중국의 승려로 일본에 갔다. 인도에 간 사실은 없다.
- ② 혜자는 고구려에서 일본에 가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③ 원효는 신라의 승려이다. 인도에 간 사실은 없다.
- ④ 엔닌은 일본의 승려로 당에 유학을 다녀왔다. 장보고가 엔닌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14. 주제: 청 왕조/ 정답: ③

해설: 자료에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가 나온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청이다. 또한, 인구가 3억이 넘는다는 것을 통해, 대륙의 스케일을 짐작해 볼 수 있고, 17세기 중반 이후이니 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인데, 사고전서는 건륭제 시기에 편찬된 것이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대동법은 조선에서, 광해군 시기에 실시되었다.
- ② 조카마치는 일본에서 생긴 것이며, 에도 막부 시기에 생긴 것이다.
- ④ 슈고가 치안을 담당한 것은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이다.
- ⑤ 일조편법 시행은 장거정의 개혁 내용이다. 장거정은 명 신종 대 인물이다.

15. 주제: 중일 전쟁 / 정답: ②

해설: 가장 먼저 '조선 의용대'라는 말이 눈에 띈다. 1938년에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자료를 보면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촉발된 전쟁이라는데, 그러면 1937년 7월에 발생한 중일전쟁임을 알 수 있다. 중일 전쟁은 1937년부터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사이 시기에 일어난 일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2번, '제2차 국공합작이 수립되었다'이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항일 연합 전선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1937년 9월에 2차 국공합작이 수립되었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만주국 수립은 1932년의 일이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을 계기로 생겼는데, 만주 사변은 루거우차오 사건이 아니라 '류타오후'사건으로 촉발되었다.
- ③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완료한 시점은 1928년이다.
- ④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은 1934년에서 1936년에 실시되었다.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시아사

⑤ 근왕 운동은 프랑스에 저항하기 위해 1885년에 실시되었다.

16. 주제: 변법 자강 운동/ 정답: ④

해설: Kangyuei와 Rangchao는 Imhnpa이며, '제도국을 개설'한다는 점, '광서 24년'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광서제' 시기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통해 '개혁'은 변법 자강 운동과 관련있는 것이다. '무술개혁'이라고도 한다. 정답은 4번인데, 서태후 등 보수파의 반발로 변법 자강 운동은 약 100일 만에 실패하고 만다. 변법 자강 운동이 '100일 천하'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변법 자강 운동은 1898년에 실시되었다. (청일전쟁 패배의 충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실시됨)

오답 선지 분석

- ① 갑신정변은 1884년에 실시되어 변법자강 운동을 배경으로 할 수 없을뿐더러, 조선 내 메이지 유신에 감명받은 급진 개화파가 추진한 것이다.
- ②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실시되었고 청일전쟁으로 종료되었으니, 1895년 정도에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법 자강 운동은 1898년에 일어났으므로, 양무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 ③ 자유 민권 운동은 1870년대의 일이고, 무관하다.
- ⑤ 판보이쩌우의 동유 운동이 1905년에 일어났다. 동유 운동을 모범으로 삼기에는 변법 자강 운동이 1898년에 먼저 일어나버렸다. 아쉽다.

17. 주제: 미일수호통상조약과 강화도 조약 사이 / 정답: ④

해설: 우선, (가)의 6조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이 등장하니 둘 사이에 체결된 조약임을 알 수 있고, 일본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미국의 법으로 처벌'된다는 점은 '치외 법권', 즉, '영사 재판권'을 규정하는 조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58년에 체결된 미일수호통상조약이다.

(나)는 조선, 일본간의 조약임을 알 수 있고, 부산 외에 두 곳 항구, 즉, 3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범죄는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는 것에서, 역시 치외법권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조합했을 때, (나)는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다.

따라서, 1858년과 1876년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면 정답인데, 정답은 ④번, 청일수호조규의 체결이다. 해당 조약은 1871년에 체결되었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신축 조약은 의화단 운동에 대해 8개국 연합군이 개입하면서 체결되었고 1901년에 체결되었다.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시아사

- ② 응우옌 왕조 성립은 한참 전의 일인데, 1802년에 수립되었다.
- ③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에 일어났다.
- ⑤ 메이지 헌법은 1889년에 제정되었다.

18. 주제: 근대 도시 - 상하이 / 정답: ⑤

해설: 자료를 보자. 우선, 난징 조약으로 개항했다고 한다. 난징 조약으로 개항된 곳은 5곳, '광저우, 상하이, Ningbo, 샤먼, 푸저우'이다. 그 중 하나겠지? 또한, 조계가 설치되었고, 와이탄이 있었다는 것을 보니 '상하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100년 전, 즉,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곳임을 제시했으니 '상하이'이다. 정답은 ⑤번인데, 영국 상인에 의해 상하이에서 신보가 창간되었다.

오답 선지 분석

- ① '할양'과 '조계 설치'의 차이를 모르면 이것을 골랐을 지도 모른다. 적어도 동아시아사 내에서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할양받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자. 홍콩, 주룽반도이다. 상하이는 없다.
- ② 경사대학당은 베이징에 건립되었으며 후에 베이징 대학교로 바뀌었다.
- ③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에 세워졌다.
- ④ 일본 최초의 철도는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를 잇는 것이었다.

19. 주제: 베트남 독립운동 / 정답: ②

해설: 우선, 이 글의 제목에서 호찌민이 발표했으니 베트남과 관련된 글임을 알 수 있다. '북위 17도 선의 군사 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공화국'을 세운 것은 '베트남 민족 공화국'의 일이므로 1945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제네바 협정 직후인 1954년의 어딘가 혹은 직후라고 할 수 있다.

연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에 체결되었다. 6.25는 1953년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은 1960년에 결성되었다.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한 것은, 최소 베트남전이 시작한 통킹만 사건을 기점으로 1964년 이후이다. 정확히 말하면 1964년부터 파병되었다. 파리 평화 협정은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1973년에 조인되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했음을 의미하며, 1976년에 수립되었다.

따라서, 1954년이니 (나)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2020년 6월 모의고사 해설 by 오호 동아아시아사

20. 주제: 문화대혁명 / 정답: ②

해설: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라고 한다. 문화대혁명이 우선 생각이 나고, 또한, 홍위병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문화대혁명이 확실하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에 시작되어 1976년에 종료되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을 고르면 정답이다.

ㄱ. 중국과 일본이 수교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수교했다.

ㄴ. 타이완의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1987년의 일이다.

ㄷ. 한국에서 유신 체제가 시작된 것은, 박정의 정부, 유신 헌법이 공포된 해는 1972년이다.

ㄹ.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은 1986년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을 포함하는 ②번이다.